장애인 체전…끝까지 달린다 13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 척수장애 1500m 휠체어 경기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은반의 별들 집합 환상의 아이스쇼

*전 세계 피겨스케이팅을 수놓고 있는 '은반의 별'들이 국내에서 환상적인 아이스쇼를 펼친다.*

*지난해 마리아 샤라포바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맞대결을 성사시켰던 현대카드가 올해에는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을 초청해 16일 오후 3시30분과 17일 오후 3시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2006-슈퍼스타즈 온 아이스' 개최한다.*

## '슈퍼매치 2006' 16일 개최
## 김연아·플루첸코 등 열연

선수들의 '이름값'만으로도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사진)를 필두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예브게니 플루첸코(24·러시아), 여자 싱글 동메달리스트 이리나 슬루츠카야(27·러시아), 아이스댄싱 금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라브카(31)-로만 코스토마로프(29·러시아)조 등 올해 동계올림픽을 빛낸 초특급 스타들이 열연한다.

이들 뿐 아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리스트 옥사나 바이울(29·우크라이나)과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공중 4회전에 성공한 일본의 안도 미키(19), 올해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1위를 차지한 알베나 덴코바(32)-막심 스타비스키(29·불가리아)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알렉세이 야구딘(26·러시아), 페어로 전향한 나오미 나리 남(21·한국명 남나리)-테미스토클레스 레프테리스(24·미국) 등 출연진도 막강하다.

지난 11일 페어 부문에 참가하는 남나리-테미스토클레스 레프테리스조가 일찌감치 입국한 가운데 14일 새벽 4시15분 옥사나 바이울을 시작으로 대회 참가자 전원이 차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각오를 밝히게 된다.

또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는 참가자들의 '원 포인트 클리닉'과 함께 팬 사인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빅스타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바르셀로나·첼시 '산뜻한 출발'

## 소피아·브레멘 각각꺾고 1승
## 뮌헨·AS 로마도 서전 장식

지난 시즌 유럽클럽축구 챔피언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종가' 잉글랜드 리그 우승팀 첼시가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서전을 상쾌한 승리로 장식했다.

'별들의 잔치'가 막을 올린 13일(이하 한국시간) 바르셀로나와 첼시, 바이에른 뮌헨(독일), AS 로마(이탈리아)가 완승을 거두며 우승 전선을 향해 산뜻한 출발을 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누캄프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A조 1차전 홈 경기에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루도비치 지울리, 카를레스 푸욜, 사뮈엘 에토오가 릴레이 골을 뿜어내고 호나우지뉴가 종료 직전 골 퍼레이드를 마감하는 축포를 터뜨려 챔피언스리그 데뷔팀 레브스키 소피아(불가리아)를 5-0으로 대파했다.

같은 조의 '로만 제국' 첼시는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 경기장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강호 브레멘(독일)과 1차전 홈 경기에서 가나 국가대표 마이클 에시엔의 선제골과 '전차군단의 엔진' 미하엘 발라크의 페널티킥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완승했다.

B조에서는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이 마르코 카네이라의 선제 결승골로 인터밀란(이탈리아)을 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같은 조의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클라우디오 피사로, 호케 산타크루스, 바스티안 슈바인스타이거 등이 골 세례를 퍼부어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러시아)를 4-0으로 대파했다.

2004~2005년 시즌 이 대회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은 C조 1차전에서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과 득점없이 비겨 불안하게 출발했다. 같은 조 갈라타사라이(터키)와 보르도(프랑스)도 0-0으로 비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바르셀로나 유니폼
## 106년만에 광고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FC 바르셀로나가 1899년 창단 이후 106년을 지켜온 전통을 깼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13일(한국시간) 홈 구장인 누캄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조 1차전 레브스키 소피아(불가리아)와 경기에 가슴에 글자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자줏빛과 푸른색 세로줄 무늬 유니폼으로 유명한 바르셀로나는 창단 이후 한 번도 유니폼 앞면에 광고 문구를 넣은 적이 없다.

레알 마드리드 등 다른 구단들이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스폰서 비용을 받고 유니폼 광고를 하지만 바르셀로나만이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켜왔다.

그런 바르셀로나가 UNICEF(유엔아동기금)라는 글자와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이 구단이 후진국 아동 에이즈 퇴치에 매년 150만 유로(18억 여원)씩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이영표 내일 UEFA컵 출전 여부 관심

지난 주말 경기에 결장한 이영표(29·토튼햄)가 1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컵 1라운드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와 원정 경기에 출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표는 아시안컵축구 예선 이란, 대만전에 출전하기 위해 베어벡호에 소집됐다 영국으로 돌아간 뒤 지난 10일 박지성(25)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시즌 4차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틴 욜 토튼햄 감독이 "A매치 두 경기를 뛰고 장거리 비행을 한 상태라 휴식이 필요하다"며 출전 엔트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영표는 주말을 쉬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15일 오전 3시 체코 프라하의 에브제나 로시케호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윙백 요원으로 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토튼햄이 이영표의 AS 로마(이탈리아) 이적 해프닝 직후 영입한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파스칼 심봉다가 오른쪽 윙백으로 데뷔 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왼쪽 사이드에는 수비력이 돋보이는 베누아 아소 에코토(카메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 스페인에 완패
### 세계선수권 여자농구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이 2006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다.

한국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브라질 상파울루의 이비라 푸에라 아레나에서 열린 A조 1차전 스페인과 경기에서 변연하(20점·3점슛 4개)가 분전했지만 아마야 발데모로(17점·3점슛 3개)와 아길라 로페스(15점·3점슛 5개)의 중,장거리 슛을 막지 못하고 57-87로 힘없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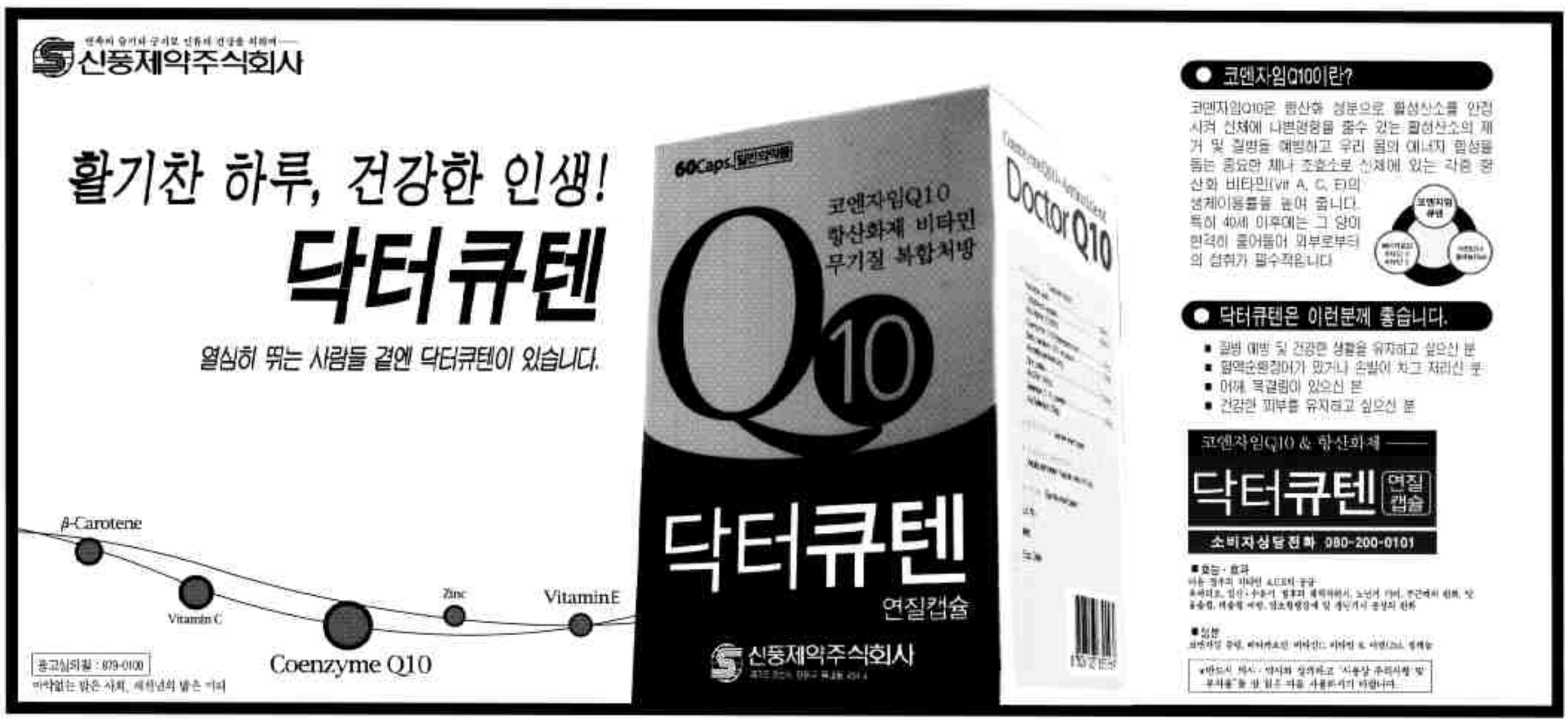
1패를 당한 한국은 A조 4팀 중 상위 3팀만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1라운드에서 브라질(14일),약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15일)와 경기를 남겨 뒀다.

## 스포츠중계

14일(목)

▲메이저리그〈텍사스-디트로이트〉(07 : 55·Xports)

▲장애인 체육대회(14 : 10·KBC), (14 : 40·KBS1), (14 : 45·MBC)

▲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삼성화재-LIG〉(14 : 00·KBS SKY Sports), 〈KT&G-GS칼텍스〉(16 : 00·KBS SKY Sports)

▲프로야구〈롯데-현대〉(18 : 00·KBS SKY Sports), 〈SK-한화〉(18 : 15·SBS스포츠), 〈KIA-LG〉(18 : 30·MBC ESPN)